

화제의 법률안 발의 2題

5·18 피해 '보상'을 '배상'으로 軍 비행장 보상기준 확대

임내현 의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국가의 '보상'을 '배상'으로 바꾸는 법안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보상심사를 신청도 하지 못한 환경성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을 바로 잡고,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보상'을 '배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동철 의원

군용 비행장 인근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동철(광주 광산 갑) 의원은 17일 군용 비행장 주변의 소음도 75웨를 이상인 지역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점진적으로 소음방지시설 설치와 피해보상을 확대하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후인 2020년에는 75웨를 이상인 모든 주택에 소음방지시설과 냉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소음피해 보상 대상도 우선 85웨를 이상으로 하되, 매 5년 단위로 보상기준을 점차 확대하는 내용 등 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기자 노트

문화전당이 국책사업이라고?

최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건립을 추진하는 정부의 시각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법안이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015년 개관할 문화전당의 운영주체를 특수법인으로 정하는 내용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것이다.

문제삼는 또 다른 이유는 문화전당 운영을 맡은 법인이 정부를 상대로 문화전당 콘텐츠(전시·공연)나 운영예산을 요청하고 따내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문화전당 사업을 총괄하는 정부조직인 문화중심도시 추진단도 올해 필요한 콘텐츠 구축예산 2500억원 가운데 70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윤영기 문화2부 차장

특수법인은 정부기구가 아닌 민간조직으로, 문화융성을 추구하는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문화전당의 운영을 초기부터 민간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정부가 총력을 쏟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대형현안에서 발을 빼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법률 개정안도 문제지만 문화부의 '불통행정'은 두고 두고 아쉽다. 광주에서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추진돼도 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예산확보는 물론 300여명에 달하는 문화전당 전담인력을 공무원 정원으로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화전당 사업이 광주에서 시작된 지 10년을 넘어섰는데도 정부가 해당 지역과 교감 없이 개정 법률안을 만들고 불통 얘기를 늘어놓는 지 답답하다.

법률안에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은 "문화전당(건물)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 뿐이다.

광주 지역사회가 개정법안을 통한을 마련하면서도 단 한차례 공청회도 열지 않았다. 물론, 무시할 수 없는 문화부의 곤궁한 입장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이명박 정부, 현 정부까지 정권이 세번이나 바뀌면서 외풍이 많이 들어와서다.

광주 지역사회가 개정법안을 통한을 마련하면서도 단 한차례 공청회도 열지 않았다. 물론, 무시할 수 없는 문화부의 곤궁한 입장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이명박 정부, 현 정부까지 정권이 세번이나 바뀌면서 외풍이 많이 들어와서다.

그럼에도, 문화전당 사업이 광주에서 시작된 지 10년을 넘어섰는데도 정부가 해당 지역과 교감 없이 개정 법률안을 만들고 불통 얘기를 늘어놓는 지 답답하다.

예산확보는 물론 300여명에 달하는 문화전당 전담인력을 공무원 정원으로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화전당 사업이 광주에서 시작된 지 10년을 넘어섰는데도 정부가 해당 지역과 교감 없이 개정 법률안을 만들고 불통 얘기를 늘어놓는 지 답답하다.

법률안에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은 "문화전당(건물)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 뿐이다.

광주 지역사회가 개정법안을 통한을 마련하면서도 단 한차례 공청회도 열지 않았다. 물론, 무시할 수 없는 문화부의 곤궁한 입장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이명박 정부, 현 정부까지 정권이 세번이나 바뀌면서 외풍이 많이 들어와서다.

“호남고속철 레일부품 하자에도 계속 사용”

심재철 의원 지적

호남고속철도에 사용되는 레일 부품이 기준치를 벗어났다는 시험 결과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다, 애초 공급하기로 한 재질과 다른 재질의 부품이 납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7일 “독일 보슬로사의 국내 수입판매업체인 AVT사가 지난해 7월 호남고속철도 제품 선정 시공사에 제출한 레일체결장치 공급원 승인신청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레일체결장치의 주요 부품인 탄성패드 시험 결과에서 10개의 샘플 중 5개가 하자보증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고무(EPDM) 재질로 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은 “탄성패드는 고속철도의 충격을 흡수하는 핵심 역할을 하며, 체결장치 파손과 궤도균열을 일으켜 차질 열차탈선 등의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갑리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측은 제출된 10개 샘플의 전체 평균값이 기준치 이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문제의 제품을 통과시켜줘 결국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탄성패드 하자보증의 또 다른 근거자료로 제출된 네덜란드 현장채취 샘플의 경우 갑리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참여 없이 채취된다고, 네덜란드 샘플은 오스트리아의 공장에서 제조되지만 호남고속철도에 사용된 패드는 중국 공장에서 제조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광주시, 전국 첫 복수노조와 단협 체결

광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복수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17일 오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사측 대표인 강순환 광주시장과 노조측 대표인 강순환 광주시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상호 광주시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2개 공무원노동조합이 참석해 총 11장 93조항 133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서에 합의 서명했다.

합의된 단체협약 내용은 ▲근무조건, 휴식복직 업무 추진 때 협의 ▲공정한 인사와 능력직공무원 적정업무 부여 등 처우개선 ▲대학(원) 진학·연수 등 자기개발 기회 및 편의제공 ▲휴일근무 때 대체휴무 또는 수당 지급 ▲임상부 보호와 안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등이다. 광주시 임영을 총무과장은 “이번 단체협약으로 노사가 하나로 뭉쳐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확립하고, 행복찬 창조 도시 광주 건설에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6·25가 복침?... 역사왜곡 바로잡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훈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언론에서 실사한 청소년 역사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고교생 응답자의 69%가 6·25를 복침이라고 응답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훈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언론에서 실사한 청소년 역사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고교생 응답자의 69%가 6·25를 복침이라고 응답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방정가

광주시의회 예결위원장에 서정성 도시가스사업개정안 폐기 건의안 통과

광주시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 임기 1년의 예산결산위원장에 서정성(민주당·남구 2·사진) 의원을 17일 선출했다. 시의회는 간사에 강은미(진보정의·서구 4) 의원을 선출했다. 예결위원은 위원장, 간사를 포함해 김민중·김선호·이은방·정현애·조오섭·조영표·허순우 의원 등 총 9 명이다. 서정성 신임 예결위원장은 “앞으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예산을 철저히 심의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주연(통합진보·비례) 광주시의원이 제출한 가스산업 사(私)기업화 반대 및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폐기 건의안이 17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 “구조개편, 경쟁도입의 명분으로 실시된 가스산업의 사유화 정책은 2000년~2006년까지 국민의 혈세 17조6000억원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국가기간산업 철도산업과 가스산업은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합의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희공인중개사 모든부동산 급매매 급매처분상담 경매 공매 압류 미준공건물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부동산 말소와 동시에 일괄매입 매수자 상담환영

신한공인중개사 신축 원룸 매매 전문 북구 전대 상대·농대 1분, 신축 4층, 14개 주택(임) 월수익 500만, 매가 5억 9천만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북구 전대 정문 1분, 신축 4층, 16개 (주택 40평) 월수익 750만, 매가 8억 4천만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북구 전대 정문 1분, 신축 4층, 16개 (주택전환) 월수익 750만, 매가 8억 8천만 (엘리베이터,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서구 쌍촌동 윤천역 2분, 신축 3층, 8개(주택임) 월수익 280만, 매가 5억 2천(보 2천, 용 1억 2천) 서구 쌍촌동 신축 4층, 원·투룸 14개(주택임) 매가 6억 9천만 북구 삼각동 신축 4층, 원·투룸 11개(주택임) 코너, 최고 위치 월수익 330만 (보 2500만, 용 1억 2천) 매가 7억 5천만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특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위치 시설이 어울린 절경의 별장지 토지 4,900㎡(1,485평) 건물 245㎡(75평)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건물(100%)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시설 및 내부 공기 자동배출방식의 숨쉬는 집. 자세한 문외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매매가 : 협의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산동 차순환도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3만 35만원 자세한 문외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공장, 창고, 전시장 등 매월동 서광주역 인근 2차순환도로 접 자연녹지 전 1,620㎡(493평) 매매가 200만원 조정 개지동차관리시설, 전시장, 창고 등 투지적합 저렴한 전시장매장 주월동 상가 풍양지구 입구 대로변 코너 매지 512㎡ 건물560㎡ 매매가 7억9천(가구, 전자, 자동차, 아웃도어 등)전시장매장 최적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임대·급매매 웨딩홀 상설부페 임대 2,824㎡ (854평) 주차 500대 보2억 / 월1,500만 매매가15억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임대 2,479㎡ (750평) 주차 500대 보2억/월1,200만 매매가10억 급매인수 11억 건물5,700㎡ (1,740평) 보증금4억 /월2,700만 감정가 78억 급매가 25억 용지역 14억 010-3605-7814

급매매 신인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면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중앙공인중개사 건물매매 총장로 총장 피출소 인근 대지 700㎡ 건물 3,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대형 브랜드 매장 적합 대지, 전, 답 서구 세하동 2차선 도로접 주거지역 답 12,522㎡(763평) 매매가 평당150만원 (물류창고 공장 적합) 전원주택지 담양군 대전면 평정리 한재골 입구 저수지 위 전망 아주 좋음 대지1,333㎡(약403평) 매매가 평당 65만원 062-374-5945 010-3162-4989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7층) 보.5억4천, 월3500만 매46억원 상무지구 중심상업지(5층) 보3억, 월2500만원 매39억원 상무지구 중심상업지(3층) 보3억원, 월2000만원 매23억원 상무지구 중심상업지(5층) 보5억, 월4100만원 매80억원 광산구 수안지구(5층) 보2억원, 월1390만 매27억원 광산구 신항동(5층) 보2억, 월1040만 매19억원 대지/답 금호동 계획도로접 자연녹지 3,400㎡ 매31억원 (병원,사육,정려예식장)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매 36억원(병원,사육) 상무지구 중심상업지408㎡ 매 8억5천(식당,유흥노래방) 치평동 광순간도로 395㎡ 매14억원(병원,사육,전시장) 마북동생생녹지 도로접 895㎡ 매가1억1천(식당,사육) 쌍촌동 윤천역부근 상업지 845㎡ 매가125억 (사육,전시장,병원,도시헌) 세종시 중심상업지 1715㎡ 매가162억원(상가,분양투지) 상가건물, 나대지 급구 062-381-6001 010-3753-0033